

九鍼에 관한 研究

The study of the usage of Jiu-Zhen(九鍼)

정기진* · 조현석** · 윤종화***

大韓氣功醫學會

ABSTRACT

Jeong, Ki Jin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oon, Jong Hwa (O.M.D. Ph.D)

Going back to long chinese medical history, there were many different methods of treatment according to the origin of local chinese areas, such as Bian-Shi(砭石) from east, herbal therapy from west, acupuncturing from south, moxibustion from north, and manipulating therapy from middle china.

In the midst of these therapies, acupuncture needling had developed very much both in theories, shapes, usages and also in therapeutic boundary.

Historical books dealing with acupuncture had introduced and used Jiu-Zhen as a tool for acupuncture needling in common.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each texts about in shape, use, and there are also another different point of view ab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ian-Shi and Jiu-Zhen.

So the author, in this research, tried to look for how Jiu-Zhen had took on its real kinds, adaptive usages, therapeutic boundaries, many different skills of needling.

By researching over 『 Ling-Shu, Jiu-Zhen (靈樞,九鍼) 』, 『 Ling-Shu, Jiu-Zhen-Shi- Yi-Yuan (靈樞,九鍼十二原) 』, 『 Ling-Shu, Guan-Zhen (靈樞,官鍼) 』, and by comparing them with the contents of Jiu-Zhen in 『 Zhen-Jiu-Jia-Yi-Jing (鍼灸甲乙經) 』 『 Zhen-Jiu-Da-Cheng (鍼灸大成) 』, the author discovered small conclusions such as following.

1. Taking Jiu-Zhen in a narrow sense, it only represents nine different needles used in different cases. But in large sense, this means nine different needling methods using each different needles which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Wu-Ci (五刺), Jiu-Chi (九刺), Shi-Yi-Ci (十二刺) in 『Ling-Shu, Guan-Zhen』
2. Jiu-Zhen has been first originated from stone age as a substitute for Bian-Shi and through bronze and iron age, it followed a process of it's own shape and applying functions. As an example, the moxibustional therapies shown in 『Zu-Bi-Shi-Yi-Mai-Jiu-Jing (足臂十一脈灸經)』 『Yin-Yang-Shi-Yi-Mai-Jiu-Jing (陰陽十一脈灸經)』 in ahead of 『Nei-Jing (內經)』 era, was replaced as acupuncture therapies
3. The contents of Jiu-Zhen both in 『Nei-Jing』 and 『Ling-Shu, Guan-Zhen』 have much relationship in acupuncturing skills and shape. So Jiu-Zhen had been originated on the base of Bian-Shi in ancient times to develop into delicate shape, skill, and therapeutic foundation of modern oriental medicine.

I. 緒 論

古代에 治療方法으로는 湯液, 毒藥의 內治, 針石, 鑿石, 艾灸의 外治가 있으며¹⁾, 地域的 空間的 要素로 因하여 東方의 砭石, 西方의 毒藥, 北方의 灸燔, 南方의 微針, 中央의 按蹻등의 治療法이 發達되었으며, 九針은 南方에서 由來되었다 하겠다.²⁾

《素問·寶命全形論》 “制砭石大小” 하여 鑿石의 形態와 種類가 多樣化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靈樞·九針》에서 九針의 名稱, 長度, 形狀, 用途가 記載되어 있고, 《素問·針解》에서는 九針의

來源, 命名의 淵源등 人과 天地自然의 相應原理로 闡述하였다³⁾.

《靈樞·本腧》에서는 針刺의 運用은 臟腑經絡, 腧穴의 基本內容을 把握하여야 한다 하였고, 《素問·疎五過論》에서는 自然系의 變化規律과 臟腑經絡의 生理病理 및 病人의 社會, 生活, 情神, 體質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靈樞·九針》에서는 九針의 相應關係를 위로는 自然現象을 바탕으로 人體相應部位에 對備하고, 生理狀況에 따른 各各의 다른 用途로 사용되었다.⁴⁾

歷代 針灸諸家의 書籍에는 九針의 形態와 用途가 약간씩 다르게 記載되어 있으며,⁵⁾ 현대의 考古學의 發掘과, 文獻學의 研究는 砭石의 다양한 형태가 제조, 존재 하였고, 九針의 南方由來說을 뒷받침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

- 1) 康鎭彬 : 中國針灸通釋·經典針灸學,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p.142.
-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44.

3) 康鎭彬 : 前揭書, pp.142~143.

4) 上揭書, pp.143~148.

5) 黃龍祥 : 中國針灸刺灸法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6, pp.19~24.

하고 있으며, 馬는 각종 考古文獻資料를 考察하여 古代九針을 합리적으로 復原하고 醫療用具로 製造하였다⁶⁾.

이에 논자는 九針의 연구가 針灸의 種類와 適應症, 針灸治療의 範圍 및 各種刺法의 發生과 連繫를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思料되어 九針에 관하여 研究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資料研究

1. 研究 方法

본 연구에 사용된 九針의 原文은 《靈樞·九針》의 原文을 引用, 原文研究의 進行은 原文, 注釋, 解釋의 順으로 하였다.

1) 原文 : 九針의 原文은 원문대로 적되 變動 혹은 잘못이 있으면 注釋에서 고쳐서 적고 설명하였다.

2) 注釋 : 原文中에서 어려운 문장 및 용어는 1984년판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였다.

3) 解釋 : 原文에 充實하여 가능한 한 쉽게 表記하였다.

2. 研究資料

[原文] 崎伯曰, 九針者, 天地之大數也, 始於一以終於九[1], 故曰, 一以法天, 二以法地, 三以法人, 四以法時, 五以法音, 六以法律, 七以法星, 八以法風, 九以法野[2].

[注釋] [1] 天地之大數也, 始于一而終於九: 大數는 자연의 規律을 말하며, 大는 보편적인 뜻을 함유한다. 古人은 一을 숫자의 시작으로 九를 숫자의 마침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九에 一을 더하면 十이 되니 또한 변하여 一이 되므로 數가 다시 일어나는 기점이 된다. 그래서 “始于一而終於九”의 數理를 설명하니 이는 모든 사물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르는 자연의 발전규율이다.

[2] 九以法九野: 野는 영역으로 古代 九州區域의 나눈 부분을 九野라 불렀다.

[語釋] 岐伯: 九鍼의 발생은 天地의 大數에서 따온 것이고 天地의 數理는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 이르러 마치니 사물의 보편적인 자연규율이다 그래서 九鍼이 실제로 각종 자연현상에 相應함을 설명한다. 第一針은 하늘을 본뵈고 第二針은 땅을, 三針은 사람을, 四針은 四時, 五針은 五音, 六針은 六律을, 七針은 七星, 八針은 八風, 九鍼은 九野를 본뵈었다.

6) 陳漢平: 中國針灸年紀(針灸文獻篇), 上海, 遠東出版社, 1993, p.160.

【原文】黃帝曰，以針應九之數，奈何？

岐伯曰，夫聖人之起，天地之數也，一而九之，故以立九野。九而九之，九九八十一，以起黃鍾^[1]數焉，以針應數也。

【注釋】 [1] 黃鍾：六律의 하나로 古代의 音律을 교정하는 악기의 일종이다. 대나무로 만드는데 길이가 九寸이며 每寸은 기장 아홉 개의 세로길이에 해당하고 九寸은 합하여 八十一개의 기장길이에 달한다. 九鍼은 이 數에 대응하니 그 변화가 매우 많아서 많은 종류의 질병에 활용할 수 있다.

按：縱黍는 기장 낱알의 길이를 말한다. 古代에 기장으로 分寸을 정하여서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로써 音律을 제정했다. 기장 낱알의 세로길이가 一分이고 九分이 一寸이니 기장 아홉 낱알의 직경을 서로 쌓아 합하면 一寸이 된다. 「淮南子」 天文訓：“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天地三月而爲一時，以三參物 三三如九 故黃鍾之律九寸 而宮音調 因而九之九九八十一 故黃鍾之數立焉。黃者 土德之色 鍾者 氣之所種也”

【語釋】 黃帝：鐘과 九數의 相應은 무엇인가？

岐伯：고대의 성인이 천지의 數理를 창립했는데 一에서부터 九까지이다. 이것으로 크게 땅을 아홉 개이 분야로 나누는데 만약 九와 九가 相應하며 八十一이 되어 黃鍾의 數가 建立되고 九鍼이 이에 相應한다.

【原文】 一者，天也，天者，陽也，五臟之應天者肺，肺者，五臟六腑之蓋也，皮者，肺之合也，人之陽也。故爲之治針，必以大其頭而銳其末，令無得深入而陽氣出。

【註釋】 [1] “肺者，五臟六腑之蓋”：蓋，또는 “花蓋”라고도 한다. 봉건제왕만이 사용한 수레의 덮개나 술을 가리킨다. 肺의 위치는 가장 높이 있어서, 덮어서 五臟六腑를 본다. 생긴 것은 率蓋같아서 蓋라고 칭한다.

【語釋】 첫째, 이 象을 天에 비유해 보면 天은 陽에 속한다. 인체 五臟 中에 있어 肺는 呼吸을 主하고 밖으로 天氣와 상응한다. 또 肺의 위치가 가장 높아 五臟六腑의 花蓋가 된다. 오직 天空이 만물 하나하나를 덮고 있는 것과 같다. 肺는 皮毛와 外合하고 皮毛는 體표의 表는 皮膚에 있어서 陽부분에 속한다. 이로 인해 鍼의 형식을 이룰 때, 침의 방식은 다양하다. 모름지기 鍼頭는 크고, 鍼尖은 예리하고, 淺刺는 빠르게, 深刺는 제한해야 한다. 邪氣가 皮膚에 있는 病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陽氣를 開泄시킴으로 解表退熱한다.

【原文】 二者，地也，人之所以應土者，肉也。故爲之治針，必肅其身而員其末，令無得傷肉分，傷則氣得竭。

【註釋】 “肅其身而員其末”：「一切經音義」 「三蒼」을 인용하여 郭氏가 注하기를 “肅은 竹管이다” 라 하였는데 肅其身은 鍼體가 둥글

고 곧아서 竹管같은 형상임을 지
침한 것이고 員其末은 鍼尖이 계
란형상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
다. 「類經」十九卷 第二注：“鍼
이 계란형태인 것은 分肉間에서
理氣導滯하여 肌肉을 과도하게
상하게하여 脾氣가 枯渴됨을 두
려워하여 예리하게 하지 않은 것
으로 分肉간의 邪氣를 主治한다.”

[語譯] 둘째, 象을 地에 비유해 보면 地
는 土에 속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人體의 肌肉에 相應한다. 이로
인해서 圓鍼, 鍼의 양식을 형성하
게 되었는데 그 鍼身또한 竹管의
형상처럼 둥글고 곧게 하는 것을
취하였고 鍼尖은 계란형으로 정
했다. 邪氣가 肌肉之間에 있는 病
證을 치료하는데 두루 사용하였
으며, 刺鍼할 때 分肉이 손상 받
지 않도록 해야 하며 分肉이 손
상받으면 나아가 脾氣가 쇠갈해
지게 된다.

[原文] 三者, 人也, 人之所以成生者, 血脈
也. 故爲之治針, 必大其身而員其
末, 令可以按脈勿陷, 以致其氣, 令
邪氣獨出.

[語譯] 셋째로 象을 人에 비유해보면, 사
람이 능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은 血脈의 輸給營養에 의지
를 한다. 이는 血脈의 病證을 치
료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鍤鍼
에 응용되었는데, 鍼身은 大하고
鍼尖은 圓하며 鈍하게 하였다. 안
마穴位로써 가히 血脈을 소통하
고 正氣를 인도하여 충실해지게
하여 邪氣가 자연히 外出하게 한

것이다. 刺入할 때 과도하게 깊게
하여 邪氣를 끌어들여 內陷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原文] 四者, 時也, 時者, 四時八風之客於
經絡之中, 爲癰病者也, 故爲之治
針, 必筭其身銳其末, 令可以瀉熱
出血, 而癰病竭.

[語譯] 넷째로, 象을 四時에 비유해 보면
四時八方の 風邪가 人體의 經絡
에 침입하면 능히 血脈을 留滯瘀
結시켜서 점차 頑固한 양상의 병
증을 형성시킨다. 이로인해 刺鍼
時에 반드시 鋒鍼을 써야 한다.
그 鍼身은 長直하고 鍼尖은 鋒利
하다. 經絡을 刺鍼하여 血을 풀어
주어 그 瘀熱을 瀉하는데 사용하
여 능히 頑固한 疾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原文] 五者, 音也, 音者, 冬夏之分, 分於
子午, 與陽別, 寒與熱爭, 兩氣相
搏, 合爲癰膿者也, 故爲之治鍼, 必
令其末如劍鋒, 可以取大膿.

[注釋] [1] “五者, 音也, 音者, 冬夏之分,
分於子午”: 音은 五音을 가리키며
동지의 陰이 극하면 陽生이라
月은 子에서 생긴다. 하지에는 陽
이 극하여 陰이 生하고 月이 午
에서 생기니 소이 “겨울과 여름의
나눔은 子午에서 나누어 진다.”
五音은 五數에 상을 비유하고 1
에서 9까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九官數의 위치에 근거한다. 一은
坎官으로 北方에 위치하고 그 계
절은 동지이며 地支는 자이다. 九
는 離官이고 南방에 위치하며 그

계절은 하지이다. 地支는 午이다. 午는 中官에 위치하거 당연히 坎, 離官의 사이이며 陰과 陽을 여기에서 나눌 수 있다. (參着前九官八風論)

[語釋] 五數는 五音에 비유한다. 音은 五數가 되고 一, 九 兩數의 중간에 위치하며 一數는 一陽의 初生之時인 동지를 대표하고 月建은 子이다. 九數는 陽氣가 극성하는 시기인 하지를 대표하며 月은 午에서 생긴다. 五數는 당연히 一에서 九수의 중앙이며 더위는 가고 추위가 오니 陰陽消長의 변천이며 여기에서 나눌 수 있다. 만약 인체에서 寒熱이 不調하면 陽氣가 搏結하여 癰腫化膿을 형성하고 고로 大鍼을 활용하는데 그 鍼은 실제로 날카롭고, 그 예리한은 칼과 같다. 가히 癰疽를 없애고 膿血을 배출한다.

[原文] 六者, 律也, 律者, 調 陽四時而合十二經脈, 虛邪客於經絡而爲暴痺者也, 故爲之治鍼必令尖如毫, 且員且銳, 中身微大, 以取暴氣.

[注釋] [1] 耗 : 긴 털-야크, 이는 침이 가늘때를 나타내는 말로 질기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다. (類經)十九卷第二注 : “털이 강한 것은 耗를 말한다. 耗를 취하는 것은 그 가늘고 강한 성질을 이용하여 약간 깊은 곳에 쓸 수 있다.”

[語譯] 六數는 六律를 비유하였다. 六律은 聲音을 調節하고 陰陽을 나누고 四時와 十二辰에 대응하며 人

體十二經脈에 합한다. 虛邪賊風과 같이 인체의 經絡을 따라 입하여 陰陽失調케하고 氣血을 壅閉시켜 갑자기 痺症에 이르게 한다. 이로 인해 끝이 굵은 침을 빌어서 긴 털과 같은 그 침상을 취하여 동글하고 예리한 침봉이 대략 粗大하니 急性病 치료에 적용한다.

[原文] 七者, 星也, 星者, 人之七竅, 邪之所客於經, 而爲痛痺, 舍於經絡者也, 故爲之治鍼, 令尖如蚊虻喙, 靜以徐往, 微以久留, 正氣因之, 眞邪俱往, 出鍼而養者也.

[注釋] “星者, 人之七竅” 北斗에 七星이 있고 옛부터 전래되어 왔다. 하늘에 七星이 있고 이는 사람에게 견주어 七竅가 있고 그 뜻은 가이 다음과 같이 전의할 수 있다. 하늘에는 별들이 뿔뿔히 퍼져 있고 사람의 몸에는 통하는 구멍이 매우 많다. [類經]十九卷第二注 : “七以法星而合于人之七竅 卷七竅之大者言. 卽通身空竅 皆所主也”

[語譯] 七數는 七星에서 비유한 것이고 인체에 있어 七竅에 상응한다. 사람의 몸을 통하는 구멍이 매우 많다. 하늘의 별이 퍼져 있는 수 만큼이다. 만약 邪氣가 이 구멍을 따라 經絡의 사이로 침입하면 오래 머물어 나가지 않고 이내 痛과 痺가 생긴다. “所以 毫鍼을 사용하여 그 미세한 針尖을 취하여 모기나 등에의 주둥이 부위가 좋은 모양이다. 刺鍼시 그 氣를 고요 하게 하고 천천히 鍼을 넣어야 하고 기법계 잡고 넣어야

한다. 일단 邪氣가 소되면 眞氣 또한 회복된다. 발침이후 계속 요양해야 한다.

[原文] 八者, 風也, 風者, 人之股肱八節也, 八正之虛風, 八風傷人, 內舍於骨解腰脊節膜理之間, 爲深痺也, 故爲之治鍼, 必長其身, 鋒其末, 可以取深邪遠痺.

[注釋] [1] “八節”: 馬蒔-“人之手足, 各有股肱, 關節計八, 故爲八節.” 살펴보면: 이는 여기서 가리키는 바의 八節이란. 전신관절을 개괄하는 의미이다.

[2] “八正之虛風”: 八正, 즉 立春, 立夏, 立秋, 立冬, 春分, 秋分, 夏至, 冬至 등 8개 節氣이다. 虛風은 四時 八節이 정상과 다른 기후를 말하는 것이다.

[語譯] 八數는 八風에 비유한 것이고, 사람에서 8군데의 큰관절에 상응한다. 만약 四時, 八節의 虛邪賊風이 인체에 침습한다면 깊이 들어가 骨間, 腰背관절과 膜理 사이에 머물어 邪氣가 깊이 속에 들어가 痺證이 된다. 이에 침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침이 얇고 針尖이 예리한 長針을 써야한다. 이런식으로 刺鍼함으로서 邪氣가 깊이 들어가 병이 오래된 痺證을 치료할 수 있다.

[原文] 九者, 野也, 野者, 人之節解皮膚之間也. 淫邪流溢于身, 如風水之狀, 而溜不能過于機關 大節者也. 故爲之治針, 令尖如挺, 其鋒微員, 以取大氣之不能過于關節者也.

[注釋] [1] “淫邪”: 邪氣가 過盛, 蔓延하여 害가 되는 것을 淫邪라 부른다.

[2] “溜不能過于機關大節者也”: 溜는 즉 流注하는 것이다. 不能過于機關大節은 水氣가 흐르는 데 큰관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여서 腫을 이룸을 가리킨다. 《靈樞·官鍼》 “水腫病에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大鍼으로써 취한다.” 했다. 《類經》 十九卷第二注에: “무릇 淫邪가 肌體에 流溢하여 風이 되고, 水가 되고 關節을 통과하지 못해 壅滯하여 병이된 것은 반드시 大鍼을 써서 機關의 大氣를 利하게 해야 한다.”

[語釋] 九數는 九野를 비상한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온몸의 關節骨縫과 皮膚之間이다. 邪氣가 過盛하여 온몸에 蔓延하면 浮腫이 출현하여 狀이 風水病과 유사한데, 이는 水氣가 流注하여 關節을 통과하지 못해 肌膚에 積水하여 腫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大鍼을 채용하는 데, 그 針形이 막대기 같고, 鍼鋒이 약간 둥글며, 鍼身이 粗大한 것을 취해 關節을 통리시키고, 大氣를 運轉하여, 積水를 消除한다.

[原文] 黃帝曰: 針之長短有數乎? 岐伯曰: 一曰鑱鍼也, 取法于巾鍼, 去末半寸, 卒銳之, 長一寸六分, 主熱在頭身也.

[注釋] [1] “卒銳之”: 鑱鍼이 말단에서 약 반촌쯤 떨어져, 침에하게 들출

해서 狀이 화살 머리와 같음을 가리킨다. 丹波元簡은 : “추은 暴이다. 이 침을 만들 때 길이가 一寸六分인데, 그 끝에서 五分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예리해지고, 그 刺함이 얇고 表陽氣를 瀉한다.” 고 했다.

[語釋] 黃帝曰 : 鍼의 長短에 일정한 度數가 있습니까? 岐伯이 說하건대: 첫번째는 鑱鍼이라 하는 데 串鍼의 樣式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그 鍼頭가 크고, 침의 말단에서 약 半寸쯤 떨어져서 침에하게 들출하여 생김이 화살머리와 같고, 침의 길이는 모두 一寸六分이다. 淺刺하는데 적용하여 表皮의 陽氣를 通瀉하며, 주로 熱이 頭身에 있는 병증을 치료한다.

[原文] 二曰員鍼, 取法于絮鍼, 箝其身而卵其鋒, 長一寸六分, 主治分間氣.

[注釋] [1] “絮鍼” : 孫鼎官이 : “絮鍼은 옛날의 솜을 깎던 침이다.”라 했다.

[語釋] 두번째 침은 員鍼이라 하는데, 絮鍼의 양식을 모방하여 만들어, 鍼身은 둥글고 곧아 竹管과 같고, 鍼尖은 卵圓形이며, 길이가 一寸六分이고 주로 邪가 分肉間에 있는 질병을 치료한다.

[原文] 三曰鍤鍼, 取法于黍粟之銳, 長三寸半, 主接脈取氣, 令邪出.

[語釋] 세 번째는 鍤鍼이라 하는데, 黍粟의 형상을 모방하여, 둥글고 약간 뾰족하며, 길이는 三寸半 이고 經脈을 按摩하고, 行氣活血하여 邪

氣를 밖으로 몰아내는데 쓴다.

[原文] 四曰鋒針, 取法于絮針, 箝其身, 鋒其末, 長一寸六分, 主瀉熱出血.

[語譯] 네 번째는 鋒針이다. 絮鍼의 양식을 모방하여 만들었고 針身은 둥글고 곧으며 針尖은 예리하다. 길이가 一寸六分이고 瀉熱, 刺絡放血에 사용한다.

[原文] 五曰鈹鍼, 取法于劍鋒, 廣二分半, 長四寸, 主大癰腫, 兩熱爭者也.

[語譯] 다섯 번째는 鈹鍼이다. 劍鋒을 모방하여 만들었고 폭이 二分半이고 길이가 四寸이다. 주로 寒熱兩氣가 相搏互結하여 癰腫化膿을 형성한 병증을 치료하는데 찢어서 排膿시켜 熱毒을 제거한다.

[原文] 六曰員利針, 取法于釐針, 微大其末, 反小其身, 令可深內也, 長一寸六分, 主取癰痺者也.

[語譯] 여섯 번째는 員利針이다. 長毛의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針尖이 조금 크고 針身은 도리어 작아서 깊이 찌를 수 있고 길이는 一寸六分이다. 주로 癰腫과 暴發性 痺症을 치료한다.

[原文] 七曰毫針, 取法于毫毛, 長一寸六分, 主寒痛痺在絡者也.

[語譯] 일곱 번째는 毫針이다. 毫毛의 섬세한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었고 길이는 一寸六分이다. 주로 邪氣가 絡脈에 있는 寒痛痺症을 치료한다.

[原文] 八曰長針，取法于蒸針[1]，長七寸，主取深邪遠痺者也。

[注釋] [1] “蒸(qi其)針”：즉 바느질하는 긴 바늘이다. 「說文」金部：“鉞(shu)은 蒸針이다.” 《管子·輕重乙》：“一女必有一刀，一錐，一箴，一鉞” 房注：“鉞은 長針이다.”

[語譯] 여덟 번째는 長針이다. 蒸針의 양식을 모방하여 만들었고 길이는 七寸이다. 주로 邪氣가 깊고 병이 오래된 痺症을 치료한다.

[原文] 九曰大針，取法于鋒針，其鋒微員，長四寸，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針形畢矣，此九針大小長短之法也。

[語譯] 아홉 번째는 大針이다. 침의 형식은 막대기의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었고 침끝이 약간 둥글고 굵기는 가는 대나무 같으며 길이가 四寸이다. 주로 大氣가 관절을 通利하지 못하여 水가 모여 腫을 만드는 病症을 치료한다. 以上 말한 것은 곧 九針의 형상과 그 大小, 長短의 법도이다.

[按語] 張介賓이 말한 “以上 九針의 용도를 살펴 보면 무릇 취해야 할 바가 모두 有餘한 實邪를 말하므로 針은 虛한 것을 치료하는데 마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서 살펴보면 鑱鍼은 길이가 1寸 6分이고 윗 부분은 크고 끝은 뾰족하며 끝의 1寸半을 銳利하게 하여 모양이 활촉과 같게 만들어 피부의 病所가 隨時로 변하고 몸에 熱이 있는 것을 治療하는 것으로 《靈樞·九針篇》에서 이른대로 그 模樣이 頭大末銳하니 꼭 模樣이 箭頭를 닮아 있다.8) 故로 後世人은 箭頭鍼이라 稱하였다. 用法은 皮膚를 淺刺하여 陽氣를 除去한다.9)

近代에는 이것이 변형되어 皮膚鍼, 車鍼이 만들어졌으며 民間에서는 이들 鍼具를 이용하여 有色的 藥粉末을 皮下에 刺入하여 漆鍼이라 稱한다.

現代에 있어서 皮膚鍼療法으로 발전하여 多鍼을 淺刺하는 一種의 方法이며 皮膚에만 刺鍼하는 것이므로 [皮刺用法]이라고도 稱한다.10)11)12)13) 鍼具의 形式과 鍼數의 多少에 의해 七星鍼, 梅花鍼, 叢鍼으로 나눌 수 있으며, 輕微한 疼痛때문에 小兒에게 많이 適用되므로 小兒鍼이라고도 한다.

古代의 鑱鍼에서 발전한 現代의 皮膚鍼療法은 施術穴에 局限하지 않는 것이지만 單純히 [以痛爲輸]하는 것이 아니라

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331~332.
8) 李文端 : 實用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27~228.
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p.331.
10) 金賢濟의 3인 : 最新針灸學, 서울, 成輔社, 1991, p.374.
11) 洪錫殷 : 針灸基礎理論과 臨床治療, 서울, 東洋書籍, 1991, p.102.
12) 朱子楊, 黃芸 : 實用針灸新醫療法大典, 소화문화사, 1975, p.101.
13) 白充基 : 鍼術入門, 서울, 고문사, 1983, p.45.

III. 本論

1. 鑱鍼

鑱鍼은 砭石에 있어서 錢鍼(錐形)에서 發展한 것으로 《靈樞·九鍼論》7)과 《靈

東洋醫學의 統合體觀點을 理論的 根據로 삼고 있다. 皮膚鍼療法은 皮膚를 叩擊하여 經絡 丈夫의 氣를 疏通시킬 수 있으며 그 機能을 調整할 수 있다. 특히 背部의 督脈과 背俞穴을 皮膚鍼으로 施術 함으로써 疾病의 治療에 接近할 수 있는 것이다.

2. 圓 針

圓針은 古代의 筒形의 針石에서 變形發展된 것으로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서 살펴보면 圓針은 길이 1寸 6分이며 圓柱形의 달걀모양 鍼尖이 있어 筋肉, 皮膚를 문질러 使用하며 筋肉을 傷하지 않게 하면서¹⁴⁾¹⁵⁾陽氣를 除去한다.

近代에는 圓頭鍼으로 稱하여지며 頭部는 卵圓形이며 鍤鍼과 함께 體表를 문질러 分肉間의 氣滯를 治하는 것이다.

圓針의 使用方法에는 補瀉 두 가지가 있으나 補에는 鍼體와 鍼柄頭를 함께 使用하여 皮膚를 磨擦시키는 것인데 患部가 넓을 때는 鍼體側面으로 磨擦하고, 瀉로 쓰일 때는 皮膚를 긁는 方法과 接觸으로 刺戟만을 주는 두 가지 方法이 있다.

3. 鍤 鍼

鍤鍼은 古代 九鍼의 하나로서 古代의 筒形의 針石에서 變形發展 한 것이며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鍤鍼은 길이 3寸 5分の 鍼身은 比較的 크고

鍼頭는 黍粟狀으로 둥글며 약간 뾰족하며 病이 脈에 있고 氣少하며 마땅히 補해야 될 때 使用하는데, 使用時에는 經絡穴位의 皮膚表面의 按壓에만 使用하여, 皮膚에 刺入치 않아, 脈을 누르지만 刺入시키지 않고 邪氣를 泄한다.

疾病을 治療하는 것으로 脈氣虛少에 適用하여 經脈按壓時에 使用할 수 있고 近來에는 推針이라고 稱하는 이도 있다.

그 原理는 皮膚와 體內의 經絡과의 關聯을 通하여 氣血을 消導하는 作用을 일으키는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主按脈勿陷 以致其氣]라 한 것은 이를 뜻하는 것이다.

古代의 鍤鍼療法은 現代의 鍤鍼療法으로 발전한다. 鍤鍼의 길이는 3~4寸이며 굵은 綱線 또는 骨,硬木으로 만든다. 鍼尖이 둥글어 皮內에 刺入하지 않고 穴位의 表面을 按壓하며 鍼柄에는 알루미늄선을 감아서 按壓時 上下로 비벼서 感覺을 增強케 한다.

《靈樞·九鍼論》에서 言及하길 鍤鍼의 應用은 그 造作이 經脈과 穴位의 表面을 按壓할 뿐 皮膚에 刺入하지 않고 感應(得氣)의 取得을 限度로 한다. 때로는 患者自身이 使用하도록 指導한다.

鍤鍼의 適用은 [循經取穴] [以痛爲愈]의 原則에 의거하여 그 中 한가지 혹은 兩者를 結合하여 運用하는 것이다.¹⁶⁾¹⁷⁾

《靈樞·官鍼篇》에서 “病在脈氣少 當補之者 取之 鍤鍼于井榮俞經合(五俞穴)”라고 한 것은 鍤鍼의 適用範圍가 經氣의 虛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臨床에서는 疼痛性인 虛症이거

1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p.331.

15) 李潤浩 : 鍼刺手法, 서울, 鼎談出版社, 1994, p.1~2.

16) 金賢濟의 3인 : 前揭書, p.383.

17) 上海中醫學院 :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7, p.295.

나 氣分에 屬하는 病症에 鍤鍼이 많이 應用된다.

圓針과 鍤鍼은 體表를 按壓, 壓迫하거나 按摩 또는 찰과하여 神經을 鎮靜하는데 사용하니 小兒鍼도 그 일종이라 볼 수 있다.¹⁸⁾ 後世人은 圓針을 圓頭鍼이라 稱하고, 鍤鍼은 後世의 推鍼과 비슷하다.

4. 鋒鍼

古代의 九鍼의 鋒鍼은 砭石時代의 錐形의 錢鍼에서 變形發展되어 鋒鍼이 되었다.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서 살펴보면 길이가 1寸 6分이며 鍼身은 圓柱形이고 鍼頭는 銳利하며 3面에 鍼陵이 있으니 癰疾을 主治하고 熱을 發散시키고 出血 시킨다.¹⁹⁾

現代에 있어서는 三稜鍼으로 理解되며 瀉血하거나 絡血을 瀉하는 데 쓰여지니 刺血絡이라고도 稱하여진다.

古代九鍼의 鋒鍼은 現代의 刺血療法²⁰⁾²¹⁾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 刺絡療法이라고도 稱하며 三稜鍼, 小眉刀, 皮膚鍼 등의 器具를 써서 病人의 身體上의 淺表血管을 刺破하여 少量의 血液을 放出해서 疾病을 治療하고 있다. 이에 關한 治療原則은 《靈樞·九鍼十二原論》에서 「宛陣則除之」²²⁾라고 하여 이에 關한 治療原則을 提示 하였으며 《靈樞·官鍼篇》에는 絡刺, 贊刺, 豹紋刺 등으로 具體의 方法이 提示되어 있다. 또한 《靈樞·

血絡論》²³⁾에서는 “ 盛堅橫以赤, 小者如鍼, 大者如筋 ” 등의 鬱血症狀에 “ 瀉之 萬全 ” 이라고 하여 刺血法의 應用範圍를 闡明하였다.

古代의 鋒鍼으로 行하여진 刺絡療法은 現代에 있어서는 毫鍼, 三稜鍼, 小眉刀, 皮膚鍼, 車鍼, 注射鍼尖, 陶磁器片, 縫鍼刀鍼(메스)등으로도 行하여진다.

現代의 刺血療法의 造作方法으로는 點刺, 挑刺, 叢刺, 散刺의 4가지가 있다.

5. 鉞鍼

古代 九鍼의 鉞鍼은 古代에서의 刀形의 砭石에 該當하며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길이가 4寸이고 넓이가 2寸半이며 모양은 劍과 같고 날카로우며 그 모양이 칼과 같다. 膿腫의 症을 治療하고 切開 排膿한다.

後世人은 劍鍼이라 稱하며 癰腫, 즉 膿을 排出하기 위해 切開하는 것으로 現代의 割刀에 該當한다.

鉞鍼으로 發展하여 現代의 小眉刀, 割刀에 該當하는 것으로 現代의 放血療法, 割治療法, 陶治療法²⁴⁾으로 發展한다.²⁵⁾

6. 圓利鍼

古代 九鍼의 圓利鍼은 筒形의 針石에서 발전한 것으로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둥글고 날카로우며 큰 鍼頭に 작은 鍼身으로 癰腫, 痺氣暴發을 치료하며 深鍼할 수 있다.

18) 李鍾甲 編譯 : 針灸寶鑑,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82, p.139, pp.147~148.

1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p.332.

20) 洪錫殷 : 前揭書, pp.100~105.

21) 上海中醫學院 : 前揭書, p.301.

2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p.11.

23) 上揭書, p.192.

24) 崔容泰의 : 鍼灸學, 서울, 集文堂, 1988, p.1036.

25) 上海中醫學院 : 前揭書, pp.291~294.

現代에 있어서는 外科用 小眉刀로써 瀉血療法에 쓰인다.

圓利鍼의 使用은 左手(押手)를 刺鍼部位에 가볍게 대고 右手를 깊이 찔러 넣었다가 끌어올리며 鍼구멍을 늦추기 위해 前後左右로 鍼을 自由로이 깊게 얹게 빠르게 느리게 造作하기 便利하다. 鍼頭上의 구슬 같은 模樣은 鍼을 前後左右로 움직이는데 편리하다.

7. 毫鍼

古代 九鍼중의 毫鍼은 古代의 砭石에 있어서는 筒形의 針石에서 발전한 것으로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길이가 3寸 6分인데 숨털처럼 가늘고 鍼尖은 모기의 주둥이 같다. 寒熱 痛痺를 주로 治療한다. 조용하고 천천히 刺入하고 若干 오래 留鍼하여 病을 다스린다.²⁶⁾

毫鍼은 一般的으로 가장 많이 常用되는 것으로 各種의 鍼具도 역시 九鍼의 毫鍼에서 發展하였으며 歷代의 鍼灸文獻에서의 各種 手技 補瀉方法은 대개가 毫鍼을 臨床에 應用한 것이다.

近代의 毫鍼, 芒鍼, 皮內鍼으로 發展하였으며 現代의 刺鍼療法에 있어서는 毫鍼療法, 氣鍼療法, 水鍼療法, 電針療法, 耳鍼療法, 顔面鍼療法, 鼻鍼療法, 手鍼療法, 足鍼療法, 頭鍼療法등으로 발전하였다.

《傷寒論》 記述중 「溫鍼」이 있는데 毫鍼의 鍼尾에 艾絨을 燃燒하는 것으로 鍼과 艾灸를 結合한 것이다.

現代의 毫鍼요법은 臨床各科의 모든 病症治療에 廣範圍하게 應用된다.

2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p.331.

8. 長鍼

古代의 九鍼중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한 것이 九鍼의 長鍼으로서 《靈樞·九鍼論》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길이가 7寸이며 鍼身은 가늘고 길며 鍼棒은 銳利한데 深部遠痺를 주로 治療하며 쓸 때에는 深刺한다. 조용하고 천천히 刺入하고 若干 오래 留鍼하여 病을 다스린다.

後世人은 環跳鍼이라 稱하였고 長鍼이 變化發展한 것으로 近代에는 芒鍼이 應用되며 長鍼에서 發展한 것으로 芒鍼, 巨鍼, 毫鍼이 있다. 現代의 芒鍼療法은 古代의 九鍼중 長鍼에서 發展한 것이다. 鍼體가 특히 길고 造作方法이 其他 鍼具와 다르므로 使用하기 前에 充分한 練習을 해야 되며 局所의 解剖知識을 把握하여 用鍼에 身重을 기하여야 한다.

古代 九鍼의 長鍼과 現代의 芒鍼療法의 持針姿勢는 右手의 母,食,中의 三指로 鍼體의 下端附近을 받쳐서 動搖를 막고 鍼體를 中指에 密着시킨다. 이와 같이 兩手を 協同시켜 右手는 鍼柄을 捻轉하고 同時에 左手의 母,食 二指를 下向해서 若干 壓力을 주면서 서서히 按壓 引入시킨다.

9. 大鍼

古代九鍼중의 大鍼은 《靈樞·九鍼論》²⁷⁾과 《靈樞·九鍼十二原論》 및 《靈樞·官鍼篇》에 따르면 4寸이고 鍼尖은 막대기와 같고 그 날은 조금 둥글다. 水腫을 主治하며 大氣가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지 못할 때는 물을 제거한다.

27) 上揭書, pp.331~332.

後人들을 火鍼으로 瘰癧 癰腫을 治療하고 있다.

大鍼은 毫鍼을 굵게 한 것으로 加熱後 刺入하는 것을 火鍼이라 하며 內經의 焮刺가 그것이다. 長鍼과 大鍼을 結合한 것이 現代의 巨鍼이다. 大鍼은 砭石에 있어서는 筒形의 針石이 變形發展한 것이며 近代의 火鍼, 巨鍼으로 發展했고 現代의 火鍼療法과 巨鍼療法으로 理解될 수 있다.

大鍼은 砭石時代에 있어서는 筒形의 針石이 變形發展했으며 近代의 火鍼, 巨鍼으로 發展했고 現代의 火鍼療法과 巨鍼療法으로 理解될 수 있다.

IV. 考察

內經時代에 最初로 奇才된 九鍼은 內經의 記錄年度와 考古學에서 發掘된 唯物の 年代測定으로 보아 靑銅器時代에서 鐵器時代에 걸쳐 形成되어진 것으로 推定되어 진다. 本來 九鍼의 時代以前에 砭石 및 石塊의 時機가 있어서, 原始的인 人類社會에 있어 自然에 그대로 露出되어 生活하기 때문에 생긴 各種 疾病을 문지름과 두드림, 그리고 特定部位를 按壓하여 疾病을 治療하려는 努力에 副應하여 原始的 形態의 石具 및 砭石이 그러한 原始的인 醫療行爲의 道具로 使用되어 졌다.

古代의 各種 刺鍼法에 따른 鍼의 分類를 아홉 가지 즉, 九로 限定지은 데에는 九數가 天地의 大數로서 이 宇宙 生成의 生成의 始作과 終結의 意味를 담으며 모든 分野를 滿足 包容하는 意味의 數이니 九鍼은 鍼의 分野에 있어 모든 것을 滿

足하는 數의 鍼이니 各種 刺鍼法을 滿足하는 모든 鍼의 種類를 代辯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靈樞·九鍼論》에 記錄된 그 各各의 숫자와 九鍼의 意味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一은 天을 象徵하며 人身에 있어 肺와 부합되니 皮가 그 肅인 것으로 刺鍼에 있어서는 深入하지 않고 淺刺하며 皮의 陽氣를 除去한다. 이 때 使用되는 九鍼을 鑱鍼이라고 한다. 二는 地로서 人身의 六이 土에 應하니 分肉間의 氣滯를 治하되 筋肉을 傷하지 않게 하니 이 때 刺入치 않고 治하는 圓針이 使用된다. 三은 人에 應하니 人身에 있어 血脈에 該當하니 脈을 按壓할 때 쓰이고 脈의 按壓에만 쓰이고 刺入치않으면서 邪氣를 배출키 위해 鍤鍼이 쓰이는 것이다. 四는 四時를 意味하니 四時의 邪氣가 經絡에 客하여 생긴 瘤病을 治하기 위해 瀉熱出血하여야 하니 鋒鍼이 쓰인다. 五는 五音을 意味하니 寒과 熱이 相搏해서 생기는 癰膿을 劍形의 鈹鍼으로 大膿을 排出해 治할 수 있는 것이다. 六은 六律을 의미하니 陰陽四時의 規律로서 十二經脈에 合致된다. 虛邪가 經絡에 客한 暴痺를 小眉刀의 圓利鍼으로 瀉血療法을 使用하여 治할 수 있다. 七은 七星이니 人之七竅에 應하며 邪가 經絡에 머무는 寒熱痛痺를 毫毛와 같은 毫鍼으로 治할 수 있는 것이다. 八은 八風에 應하니 八正之虛風이 人身의 骨解腰脊節腠理에 머무는 深部遠痺를 長鍼으로 치할 수 있는 것이다. 九는 九野에 應하니 人身의 節解皮膚之間에 該當하며 淫邪가 人身에 머물러 大關節이 風水之狀의 大關節 病症으로 變하는 것을 大鍼으로 治할 수 있는 것이다.

九鍼以前에는 砭石의 時期가 있어 原始的이기는 하지만, 金屬具時期의 比較的 複雜多端한 九鍼이라는 커다란 變化의 時期의 前段階로서 九鍼의 發展의 礎石의 意味를 갖는다.

鑱鍼은 錢形 또는 推形의 砭石에서 發展한 것으로 模樣이 팔촉과 恰似하고 皮膚를 淺刺하여 陽氣를 除去하는 데에 使用되었고 後에 皮膚鍼, 車鍼으로 發展한다.

圓針은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한 것으로 圓柱形의 鍼尖을 가졌으니 刺入치 않으면서 皮膚를 문질러 分肉間의 邪氣를 主治할 때 使用되고 後에 圓頭鍼으로 治하여 진다.

鍉鍼은 역시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한 것으로 病이 脈에 있으며 氣少할 때 刺入치 않고 經脈을 按壓할 때 使用되며 現代에 推鍼과 비슷하며 鍉鍼療法으로 發展한다.

鋒鍼은 推形의 砭石에서 發展하였으며 後에 三稜鍼의 瀉血, 刺絡療法으로 發展한다.

鉞鍼은 陶形의 砭石에서 發展하여 그 模樣이 劍과 같고 現代의 小眉刀, 割刀에 該當하는 放血療法, 割治療法으로 發展한다.

圓利鍼은 推形의 砭石에서 發展하여 등글고 날카로우니 癰腫, 痺氣暴發을 治療하니 現代의 放血療法으로 發展한다.

毫鍼은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하였으니 當時의 毫鍼은 現在와 比較해 比較的 굵기가 두꺼웠으며 當時에는 管鍼을 使用치 않았고 現代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毫鍼요법으로 발전하였다.

長鍼은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하였으며 그 길이가 길어 深部遠痺를 治하였으니

現代의 芒鍼療法으로 발전한다.

大鍼은 筒形의 針石에서 發展하였으니 現代에 있어서는 巨鍼요법과 火鍼療法으로 發展한다.

九鍼과 現代의 鍼療法和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九鍼중 圓針과 鍉鍼은 體表를 按壓하거나 按摩하는 道具이다. 圓針은 後世人이 圓頭鍼이라 稱하고, 鍉鍼은 後世의 推鍼과 비슷하며 鍉鍼療法으로 發展한다. 鑱鍼은 淺刺하는 鍼灸로서 後世人은 箭頭鍼이라 稱하였고 皮膚鍼療法으로 發展한다. 近年에는 皮膚鍼 車鍼이 만 들어졌다. 民間에서는 이들 鍼具를 利用하여 有色의 藥粉末을 皮下에 刺入하여 漆鍼이라 稱한다. 鋒鍼은 오늘의 三稜鍼이며 瀉血하거나 絡脈을 瀉하는 데 쓴다. 鉞鍼을 後世人은 劍鍼이라 稱하며 割刀(메스)로 썼다. 圓利鍼도 外科用이며 近年에는 形態가 바뀌어 小眉刀로 만들어 瀉血하는 데 쓰인다. 毫鍼은 九鍼中의 主體로서 應用範圍가 가장 넓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刺鍼療法의 主要道具로 利用되고 있다.

《傷寒論》의 記述중에 「溫鍼」이 있는데 이는 毫鍼의 鍼尾에 艾絨을 燃燒하는 方法으로 刺鍼과 艾灸를 結合해서 應用한 것이다.

長鍼은 毫鍼을 길게 한 것이며 後世人이 環跳鍼이라 稱하였고 近代에는 芒鍼으로 應用되고 있다. 이는 長鍼이 發展變化한 것이다. 大鍼은 毫鍼을 굵게 한 것이며 加熱후에 刺鍼하는 것을 火鍼이라 稱하는데 內經에서는 焮刺라 하였다. 長鍼과 大鍼을 結合한 것이 現在의 巨鍼이다. 이밖에 近年에 이르러 應用되고 있는 皮內鍼은 皮下에 埋葬하는 單鍼이

다.

V. 結論

《靈樞·九鍼論》, 《靈樞·九鍼十二原論》과 《靈樞·官鍼篇》의 九鍼의 記載와 鍼灸甲乙經, 鍼灸大成 및 각종 針灸學 書籍의 九鍼에 대한 說明을 比較, 考察한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九鍼의 의미는 협의적으로는 《靈樞·九鍼論》, 《靈樞·九鍼十二原論》 등에 記錄된 鑱鍼, 圓針, 鍉鍼, 鋒鍼, 鈹鍼, 圓利鍼, 毫鍼, 長鍼, 大鍼의 製作方法 및 使用用도가 다른 九種類의 鍼具이며, 광의적으로는 《靈樞·管鍼》의 五刺, 九刺, 十二刺와 連繫된 廣範圍한 治療手段을 의미한다.
2. 九鍼은 석기시대의 玆石을 대신하여 靑銅器時代부터 鐵器時代에 걸쳐 完成되었으며, 經絡의 發展 및 形成에 劃期的인 役割을 하며,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灸法을 代身하는 《內經》時代의 代表的 醫療器具이다.
3. 內經에 記錄된 九鍼과 《靈樞·管鍼》의 刺鍼部位와 방법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九鍼은 古代의 砭石을 基礎로, 生産手段의 發展으로 形態의 精巧함과 適應部位의 多樣化를 이루었으며, 現代의 各種 刺鍼療法의 礎石이 되었다.

VI. 參考文獻

1. 康鎖彬 : 中國針灸通釋·經典針灸學,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2. 金泰英 : 鍼灸醫學典論, 서울, 漢方弘報社, 1979.
3. 金賢濟의 3人 : 最新針灸學, 서울, 成輔社, 1991.
4. 白充基 : 鍼術入門, 서울, 고문사, 1983.
5. 上海中醫學院 :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7.
6. 李文端 : 實用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李潤浩 : 鍼刺手法, 서울, 鼎談出版社, 1994.
8. 李鍾甲 編譯 : 鍼灸寶鑑,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82.
9. 林鍾國 :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6.
10. 朱子楊, 黃芸 : 實用鍼灸新醫療法大典, 소화문화사, 1975.
11. 陣漢平 : 中國針灸年紀(針灸文獻篇), 上海, 遠東出版社, 1993.
12. 崔容泰 의 : 鍼灸學, 서울, 集文堂, 1988.
13. 洪錫殷 : 鍼灸基礎理論과 臨床治療, 서울, 東洋書籍, 1991.
1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6. 黃龍祥 : 中國針灸刺灸法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6